

평안하십니까?

오랫동안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후원회 총무로부터 몇 번이나 잔소리를 듣고 작성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. 늘 힘든 이야기만 하는 것도 죄송하고 그랬더랬는데 이번은 기쁜 마음이 앞섭니다.

우여곡절이 많았던 3 년의 건축과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나누리 선교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.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. 한편으로는 건축을 마쳤다고는 하지만 하자보수 문제로 속을 썩고 있는데 주위 분들이 기뻐하셔서 제가 너무 눈 앞의 일에만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앞에서도 보지 못하고 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.



병원 개원식에 참석하러 오셨던 라이브교회 박성남 목사님께서 2017 년 방문 당시 사진과 현재 같은 자리에서의 사진을 비교해 보이시면서 이렇게 건물이 완공되어 서 있는 자체가 은혜라고 보여주셨습니다. 그리고 나서 오늘 그동안 공사현장들을 찍어 놓은 사진들을 정리하면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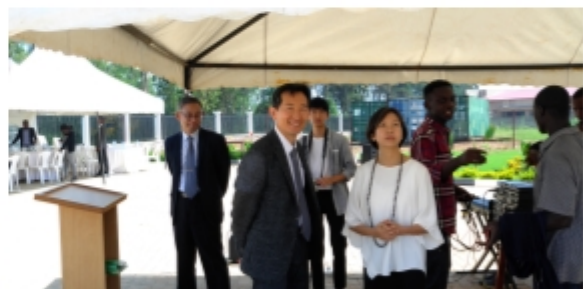
공사업체와의 분규로 수풀이 우거져 버려져 폐허처럼 보이는 건물들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. 너무 답답하기만 했던 그 때 상황이 떠오릅니다. 말끔하게 완공된 건물과 정원을 보니 온갖 인간군상들의 못난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뵙습니다.

라이브교회 청년 지우 지혁 형제가 박 목사님과 함께 이 곳을 방문했습니다. 싱가포르에서 자원봉사 하러 온 또래 Jordan 도 함께 가고 싶어해서 화산들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는 르완다의 북부 산악지역을 다녀왔습니다. 산중턱까지 비포장길을 운전해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한 Virunga Lodge 라는 곳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돌아왔습니다. 몇 번이나 대학문턱에서 미끄러져 마음 고생이 심했던 지우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. 제가 입시로 긴장하고 살았던 그 세월들이 아스라히 기억이 나고, 사실은 지난 3 년동안 나도 이 녀석이랑 같은 심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. 나는 왜 늘 변변치 않은 사소한 일상에 시달리고 지치고..나는 왜 본질도 아닌 것과 씨름하면서 무너지고 낙망하나 하는 자괴감도 들고...지우가 그런 힘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속이 많이 영글어가겠지 짐작하면서 또한 제 속사람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

고릴라들의 서식지로 태고적부터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의 켄케히 묶은 때를 씻고 내려왔습니다.

이제 병원을 시작해서 가난해서 의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르완다 사람들을 돕겠다는 두 의료선교사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다짐을 해 봅니다.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몇 장의 사진을 보면서 새롭게 발견합니다. 아무 것도 없던 황량한 벌판, 기공예배, 무성한 수풀 속에 폐허처럼 서 있던 건물, 준공예배, 어느덧 기도와 눈물 위에 새롭게 태어난 멋있는 건물, 물질과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의 축하.... 병원과 게스트하우스를 잘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장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.



허락 하신다면 5 천평 남은 대지 위에 학교가 차례로 세워져 르완다의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키워질 수 있다면 하는 바램도 함께 기도합니다.

그동안 보잘것없는 선교사들을 신뢰하고 격려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2019 년 3 월 9 일

르완다에서 이상훈 드림